

이사장 “업무방해·횡령” 상임이사 고소

상임이사 “사실 아니다” 법적 대응 고려

‘집안 싸움’ 날새는 광주국제영화제

비대위-개혁위 양분

내년 행사 제대로 열릴까 우려

올해로 15년을 맞은 광주국제영화제가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현 이사장이 업무 방해와 횡령 등의 혐의로 A상임이사를 고소하고, 해당 이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무고 등으로 법적 대응을 고려하는 등 분란이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A이사의 전횡을 문제 삼으며 영화제 쇄신을 주장하는 광주국제영화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지난 11월 꾸려진 데 이어, A이사측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가장 개혁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져 영화제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영화제의 두 축인 이사장과 조직위원장이 양측으로 갈라져 대립하고 있는 것도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년 영화제가 제대로 치러질 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내년 영화제 예산은 시비 3억원이 확보된 상태다.

29일 광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정환담 이사장은 지난 8일 광주 동부경찰에 A이사를 업무방해와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정 이사장은 A이사가 회계장부와 정산서류, 법인 인감 등을 영화제 사무실에서 다른 곳으로 빼돌려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데다 은행에 예치된 4000만원도 다른 통장으로 이체돼 횡령 의혹이 있다며 A씨를 고소했다. 이에 앞서 이사회는 지난 10월 30일 임시 총회를 열고 A이사를 공금 유용 등의 이유로 해임한 바 있다.

28일 경찰 조사를 받은 A이사는 “지난 11월 비대위 측 9명이 사무실을 불법적으로 점거하려고 해 유인관 조직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관련 서류를 옮긴 것”이라고 말했다. 또 “4000만원은 행사



최근 광주국제영화제 이사장이 상임 이사를 고소하고 해당 이사회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등 광주국제영화제가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사진은 올해 열린 광주국제영화제 레드카펫 행사 모습. <광주일보 자료 사진>

자부담 등 명목으로 모두 법인 계좌로 옮겼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A이사는 또 영화제 정관상 이사 해임은 조직위원장이 소집하는 총회를 통해야 함에도 이사회가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사회 관계자는 “해임 절차는 정관상 전혀 문제가 없다”며 “이의가 있으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될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번 고소 건과 별개로 양측은 영화제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겠다고 각각 조직을 구성해 장기간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광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등 스태프들과 문화계 인사 9명은 지난 11월 광주국제영화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호재)를 구성하고 영화제 쇄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사장과 일부 이사들은 비대위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비대위측 관계자는 “내년 행사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서류 등이 모두 사라져 업무를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

며 “지금까지 A이사의 전횡으로 조직이 폐쇄적으로 운영돼 온 것을 바로잡고, 열린 영화제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1월 4일 영화제 사무국에서 모임을 갖는다.

A이사는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개혁위원회(위원장 김명술)에서 영화제 발전 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을 모을 계획”이며 “진정한 영화제 발전을 위해 기록권을 내려 놓을 용의가 있고, 비대위측과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직위원장은 개혁위원회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지난 2001년 시작된 광주국제영화제는 5년간 시비와 국비를 받았지만 시와 관계가 틀어지면서 2010년까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민간 주도로 명맥을 이어왔다. 지난 2011년부터 다시 지원이 시작돼 올해는 시비 3억원과 국비 2500만원으로 행사를 치렀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서경식 ‘시의 힘’ 작가들이 사랑한 2015 올해의 책 선정

작가들이 사랑한 2015년 올해의 책에 서경식(60)의 ‘시의 힘’이 선정됐다.

한국작가회의(이사장 이시영·작가회의) 소속 시인, 아동문학가, 평론가들로 구성된 올해의 책 선정위원회는 한해 동안 출간된 도서들을 대상으로 토론을 벌인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작가회의는 매년 한 해를 대표하는 책을 선정해 도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책 읽는 문화운동을 견인해왔다. 올해 선정된 ‘시의 힘’은 대체불가한 시(문학)의 고유 영역을 세삼 일깨웠다는 점에서 신선한 텍스트로 평가받았다.

저자 재일교포인 서경식은 그간 미술과 사회적인 글을 주로 써오다, 이번엔 소통의 매체로 사용했던 시(詩)에 주목했다. 책에서 저자는 식민지 시절 이상화, 윤



동주, 한용운 시인과 70년대 김지하, 신동엽 시인의 시를 소개하면서 왜 시가 힘이 되는 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의 사유와 글은 신자유주의 시대를 맞아 날로 문학의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왜 시가 필요한지를 진지하게 묻고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호남예술제

2016년 전국대회 전통의 종합예술제전

제61회 호남예술제 음악부 지정곡

구분	예선 지정곡(3곡중 1곡)	본선 지정곡(3곡중 1곡)
피아노	초등부 1-2학년	1) A. Diabelli Sonatina in G Major, Op.151, No.1 제3악장 2) J. Haydn Sonata in D Major, Hob.XVI:37 제1악장 3) W. A. Mozart 12 Variations on "Ah vous dirai-je, Maman", K.265
	초등부 3-4학년	1) J. N. Hummel Rondo in E♭ Major, Op.11 2) W. A. Mozart Sonata in D Major, K.311 제1악장 3) F. Schubert Impromptu in E♭ Major, Op.90, No.2
노	초등부 5-6학년	1) J. Haydn Sonata in C Major, Hob.XVI:50 제1악장 2) F. Mendelssohn Fantasy in F# minor, Op.28 제3악장(Presto) 3) F. Chopin Variations in E Major, Op.Posth.
	중등부	1) F. Chopin Etude Op.10, No.5 2) F. Chopin Etude Op.10, No.8 3) F. Chopin Etude Op.10, No.12
고등부	1) F. Chopin Etude Op.10, No.1 2) F. Chopin Etude Op.10, No.4 3) F. Liszt Paganini Etude No.3("La Campanella")	1) L. v. Beethoven Sonata No.4 in E♭ Major, Op.7 제1악장 2) L. v. Beethoven Sonata No.21 in C Major, Op.53 제1악장 3) J. Brahms Sonata No.2 in F# minor, Op.2 제1악장
	성악특창: 자유곡 1곡	관악·현악·기악(독주): 자유곡 1곡 관악·현악·기악(합주): 첼로가 다른 자유곡 2곡 중창·중주: 자유곡 1곡 합창: 첼로가 다른 자유곡 2곡

※ 자유곡 악보 1부 지참, 필요시 제출
※ 단체: 보편대 등 필요물품 개별 준비

개최요강(음악부문)

- 대회기간: 2016년 4월 20일(수) ~ 6월 25일(토)
- 참가자격: 국내 거주하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생 및 이와 동등한 자격 소유자
- 구분(음악부문)
 - 성악특창 2피아노 3바이올린 4첼로 5플루트 6관악독주 7현악독주 8기악독주 9중창 10중주 합주(관악·현악·기악) 11성용음악
 - 심사: 본사에서 위촉한 심사위원회가 담당하고 심사위원은 신청 마감후에 위촉함.
- 시상
 - 개인·단체: 최고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 합창·합주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 개개인·단체 최고상, 합창·합주제 대상: 소정의 장학금 지급
- 참가신청
 - 기간: 2016년 4월 6일(수) ~ 4월 13일(수)
 - 방법: 인터넷, 우편, 광주일보 호남예술제 접수처
 - 참가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는 3월초 게재될 광주일보 사교(社告) 또는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전체 대회요강은 3월초에 발표됩니다.

유의사항

- 개인참가부문은 엄보(嚴譜)를 원칙으로 함.
- 필요한 악기 및 반주는 참가자가 준비해야함. (반주용 피아노는 주최측에서 준비함)
- 개인별 심사시 심사위원의 재량에 따라 소정의 제한시간을 두어 연주중 중단할 수 있음.
- 개인부문 장려상 신설(2015년 부터)

문의

광주일보 호남예술제 담당자(062)220-0541
홈페이지 http://art.kjmedia.co.kr

광주일보·아시아문화

광주전남소설가협회 신입 회장에 조성현

28일 광주전남소설가협회(이하 소설가협회)는 28일 광주 동구 춘추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조성현(55·사진) 작가를 신입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3년(2016~2018년).

송년회와 회원 작품 발간 기념회를 겸한 이날 총회에서 신입 회장으로 추대된 조성현은 “작품 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작가의 지위 향상을 위한 권익옹호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말했다. 특히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문학출판계가 위축되고 있지만 이럴 때 일수록 회원들이 문학적 패기와 열망으

로 창작활동에 매진하기를 바란다”며 “막중한 책무를 맡아 어깨가 무겁지만 회원들의 창작활동을 견인하고 열의를 담아낼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진도 출신인 조성현은 전남대 국어국문과를 졸업하고 89년 ‘민중현실과 문학운동’에 ‘구암리사람들’을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눈 내리는 마을’, ‘밀고자’ 등을 발표했으며, 현재 빛고을문예 남대대학교병원 총무팀장을 맡고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유)수호부동산중개법인은 법원으로부터 인가등록 (등록번호 15-16-15) 된 업체로서 법원경매 낙찰대리업무,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 질권대출, NPL매입, 매각 전문

(은행채권중개 및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전문)

전국 최저금리!! 전국 최고 한도!! NPL 잔금 5.2~5.9% 중도상환 무

(유)수호중개법인 물건 광고					
광주지원	2014타경 30504	주택	군산지원	2012타경 7036	근린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20736	상가	남원지원	2015타경 377	공장
순천지원	2014타경 7817	근린상가	광주지원	2013타경 10367	공장
전주지원	2015타경 8853	근린상가	광주지원	2015타경 1428	공장
목포지원	2014타경 16341	숙박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6914	임야
전주지원	2015타경 5779	숙박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29078	사무실
광주지원	2013타경 10367	공장	수원지원	2015타경 9386	근린시설
장흥지원	2015타경 605	공장	서울동부지원	2015타경 3901	근린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30627	공장	남원지원	2015타경 179	아파트
전주지원	2015타경 3629	공장	의정부지원	2013타경 16018	임야
순천지원	2015타경 2628	공장	광주지원	2015타경 375	의료시설
목포지원	2014타경 13618	아파트형공장	목포지원	2013타경 7272	근린시설
군산지원	2014타경 9739	공장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질권대출협약, JB캐피탈 NPL사업협약, 담보부 NPL 수익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전문기업입니다.

경매 개시 이전, 이후 근저당권 채권, 가압류채권 후 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채권 매입합니다.

NPL매입,중개,질권대출 담당 본부장 010-4557-3034
경매경락잔금대출지원담당 이 사 010-2170-3034

유한회사 수호 중개법인 /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

등록번호 200114-0058676 / 200114-0062461